

'리얼ID' 전면시행 또 2년 늦춰



▲ 리얼 ID 건본, 오른쪽 상단곰 문양에 별이 그려져 있다. 사진=dmv.ca.gov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미국의 '리얼 ID' (Real ID) 전면 시행 시기가 또다시 늦춰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전날 미국인들이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 단일 신분증인 리얼 ID라는 새 신분증을 받도록 한 규정 시행을 2025년 5월까지 2년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 연방정부 규정에 따라 제작된 단일 신분증을 미국 전역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리얼 ID법은 2001년 9·11 테러 발생 후 신분증 위·변조 및 신원 도용 방지를 목적으로 2005년 제정됐다.

당초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 유예가 허용됐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차례 연기돼 내년 5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리얼 ID는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발급된다. 현행 시스템대로 각 주 정부가 개별적으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은 리얼 ID법 시행일부터 주 내에서는 공식 신분증으로 그대로 인정되지만, 항공기 국내선 탑승과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건물 출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리얼 ID는 어느 주에서 발급됐든 전국 어디서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리얼 ID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연방정부 건물 출입을 위해 여권이나 군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코로나에 쌍둥이 출산 감소 난임 시술 제한 등 영향

미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쌍둥이는 인공수정 등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팬데믹 기간 예비 부모들이 난임 클리닉을 찾는 게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7일 '연합뉴스'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쌍둥이 출산은 2019년 12만291건에서 2020년 11만2천437건으로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외동이 출산은 3% 줄어드는 데 그쳤다.

2019~2020년 출산 1천건당 쌍둥이 출산 건수도 32.1건에서 31.1건으로 3% 줄었는데, 이는 2014~2019년 연평균 1%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연구팀은 "2020년 말과 작년 초에 쌍둥이 출산율이 크게 줄어든 것은 그 수정기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시기였기 때문"이라며 "이때 정부가 산부인과 클리닉 등의 난임 시술을 한시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쌍둥이 출산이 감소했다. 사진=shutterstock

작년에도 쌍둥이 출산은 2020년 수준에 비해 많이 증가하지는 못했지만, 연말부터는 출산율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연구팀은 또 코로나 기간 쌍둥이 출산이 줄어들면서 전체 조산이나 저체중아 출산도 평소보다 줄었다고 밝혔다.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양분과 공간을 나눠 쓰기에 체중도 작고 산달을 모두 채우는 것도 어려워 조산되거나 저체중으로 태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증오범죄, 2002년 이래 최다 발생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서 발생한 증오범죄가 2002년 이래 20년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LA카운티의 인간관계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elations)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신고된 증오범죄는 78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3% 급증했다. 지난해에 발생한 증오범죄의 약 74%는 폭력사건이었다.

다양한 범행 동기가운데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인종차별 범죄로 1년 전의 406건에서 17% 증가한 473건에 이르렀다.

LA카운티 인구 전체의 9%를 차지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인종차별 증오범죄의 타깃 가운데 46%를 차지했다.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도 77건으로

지난 20년 만에 가장 많은 발생 건수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은 아시아계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인이라는 구실로 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의 증오범죄 가운데 종교문제가 29%를 차지했고 그 가운데 74%의 폭력사건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성소수자 등 성적 취향과 관련된 폭력사건도 15%나 증가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인간관계위원회는 1980년부터 해마다 증오범죄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표해왔다. 이 보고서는 각지의 경찰과 교육기관들, 카운티 내의 각종 단체들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와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된다.

날말퍼즐 정답

	1	어	림		2	건	3	재	
		물				4	활	력	5
6	주	전	7	자		8	고	용	매
	름		9	당	10	사	자		
				11	고	질	12	병	13
14	주		15	조	력		16	행	17
18	유	람	선					죽	
			19	소	란		20	기	름

1450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530에 있습니다)

7	9					8	1	6
		5		9				
4	6		7		2		5	
				2	8	4	3	
	8		6			7		
		9	5					2
6			1		7	9		
		4			9		7	
				3				